

황인의 '예술가의 한끼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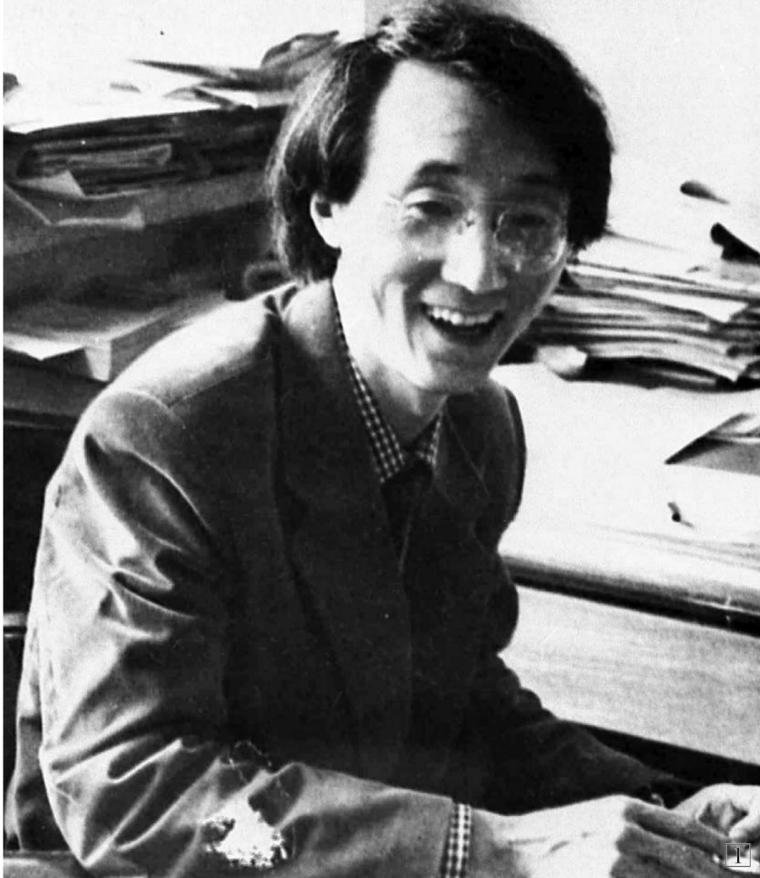
그림도 잘 그린 마광수, 밤새 흥대앞 돌다 88짜장면집으로



황인
미술평론가

2년 전 마광수(1951~2017)의 갑작스러운 부고
가 전해졌다. 파격적인 행보의 마광수는 사람과 사
건을 풀고 다니는 사람이었다. 그가 재직했던 흥대
와 연세대에는 그를 따르는 학생들이 많았다. 학
교 바깥에도 팬들이 많았다. 돌발적인 발언과 문필
활동으로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. 소설 '즐거운 사
라'는 급기야 외설 시비를 불렀고 이로 인해 그는 구
속되는 지경에 이르렀다.

마광수는 그림을 잘 그렸다. 필선의 속도감과 거
침없는 발색에 감정을 솔직하게 담았다. 속건성의
아크릴릭 불감은 현대판 문인화를 추구하던 그의
속필에 제격이었다. 1994년 압구정동의 갤러리 다
도에서 그의 첫 개인전이 열렸다. 개인전을 준비한
시간은 한두 달여에 불과했다. "그리움"의 경우
먼저 무작정 나무 두 그루를 그려놓고 보니 강변의
나무가 더 멋있을 것 같아 강을 그려 넣었고, 이왕이
면 노을 진 강변이 좋을 것 같아 하늘을 붉은빛으로
칠했다. 최종에 가서는 풍경만은 아무래도 싱거
운 것 같아 여자 한 명을 그려 넣었다. 다 그리고 보
니 여자가 떠난 남을 그리며 노을 진 강변에서 있는
듯하여 '그리움'이라고 제목을 붙였다(당시의 개인
전 서문 중에서). 작품 '그리움'은 주변의 칭찬도 많
았고 본인이 보기에도 흡족하였는지 판화로 재제작
되었다.



1 젊은 시절의 마광수 연세대 교수. 2 마광수(오른쪽)와 대광고 동문인 화가 김용철(가운데)과 송운희(왼
쪽).
(중앙포토, 사진 황인)

그림엔 거침없는 발색, 진솔한 감정
이대앞·신촌 술집 비주류 문화 탐닉
파리 골목 쏘다니듯 여기저기 출몰
볼 앤 체인, 비 풀, 발전소 등 찾아
심야식당은 예술인들로 왁자지껄

문화를 좋아했다. 초기의 흥대앞 분위기는 미국에
서 돌아온 유학생들과 과소비문화가 결합한 강남의
오렌지족 문화에 대항하는 언더그라운드 문화가 주
도했다. 거대자본이 침투하기 이전이라서 경제가
빠듯한 젊은이들도 저렴하게 나름의 문화를 즐길
수가 있었다.

그 시발점은 극동방송국 앞의 4층 빌딩 지하의 록
카페 '발전소'였다. 맥주를 마시며 춤을 추는 곳이
였다. 흥대 출신의 20대 조각가 송궁화가 자신의 작
업실을 카페로 개조했다. 신촌 일대의 젊은이들은
물론이고 강남의 유명 연예인들까지 대거 발전소라
는 새로운 감각, 획기적인 공간을 찾아왔다. 마광수
는 춤을 추지는 않았지만 이런 감각 속에 몸을 уют
이 던져놓는 걸 좋아했다.

발전소를 필두로 여러 개성적인 록카페들이 생겨
났다. 시인 하재봉이 주도하는 황금투구에는 아직
무명인 배우 최민식의 모습이 자주 보였다. 연극배
우 심철중과 황신혜 밴드의 김형태가 주도한 곱방
이에는 산울림의 김정완이 즉석공연을 했다. 도회
적 감성의 마광수가 이런 곳을 놓칠 리 없었다.



산울림극장 쪽은 분위기가 좀 차분했다. 극장 왼
쪽 길모퉁이 지하에는 '광화문연가' 등을 작곡한 작
곡가 이영훈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어 작곡가, 연주
가 등 대중음악가들이 진을 쳤다. 가수 김수철과 김
광석이 드나들었다. 둘 다 흥대앞 주민들이었다.

산울림극장에서 와우교를 건너기 전 오른쪽의 가
파른 계단을 내려가면 지하에 카페 '·라고 한다'가
있었다. 층고가 상당히 높았다. 김경식·홍록기·이동
우·표인봉·이용호 등 방송 데뷔 전의 틴틴파이버가
거의 매일 밤 이곳에 모여 맹연습을 했다.

1990년대의 흥대앞은 골목마다 화양연화였다.
파리의 골목들을 싹다니며 플라뇌르(산책자) 정신
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보들레르처럼 마광수는 흥대
앞의 여기저기를 탐하듯 쏘다녔다. 밤이 깊어지면
미술·음악·무용·연극·문학 등 각 장르를 망라하는
흥대의 수많은 예술공동체 시민들이 모이는 데가
따로 있었다. 산울림극장에서 신촌으로 빠지는 사
잇길에는 하루에 몇 번씩 경의선 화물열차가 지나
갔다. 그때마다 건널목 차단봉이 내려오면서 땀
땀 땀을 흘렸다고 땀땀거리라 했다. 이 길 중간의
88짜장면집에 예술공동체 시민들이 다 모였다. 마
광수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.

?예술공동체 시민들의 사랑방 격인 88짜장면집
은 새벽까지 문을 여는 심야식당이었다. 주인은 마
산상고 야구부 유격수 출신으로 중기에 몸이 날렵
했다. 낮에는 자전거를 타고 신촌 일대를 돌면서 음
식재료를 사서 나르고 저녁에 가게 문을 열었다. 다
변의 마산 사투리로 손님들과 스스럼없이 대화하
기를 즐겼다. 간혹 매니가 나쁜 손님이 나타나면 단호
하게 쫓아내기도 했다. 당시는 정부에서 심야식당
을 금지할 때였는데 어찌 된 셈인지 이 집만은 밤새
영업이 했다. 흥대앞의 심야족들은 다들 이 집으
를 수밖에 없었다. 짜장면, 우동면 아니라 도토리
묵, 부침개 등 소박한 안주를 갖추었다. 손님들은
밤참에 소주, 맥주를 찾았다.

윤시내 '몬테카를로의 추억'이 애창곡
흥대앞은 많은 예술가들의 연습실이자 주거지였
다. 야행성 체질의 가수 김수철, 권인하, 연극인 심
철중, 이호성, 시인 하재봉, 현대무용가 이지연, 화
가 겸 가수 김형태, 국악연주자 원일, 행위예술가
김백기, 조각가 김일용, 이일호, 철학자 조광제 등
이 늦은 밤 이 식당에 출몰했다.

발전소, 명월관, 황금투구, 곱방이 등의 록카페에
서 춤을 추다 허기를 느껴 찾아오는 젊은이들은 물
론 영업을 마친 록카페의 주인과 종업원도 이 식당
으로 다 모였다. 물론 마광수도 자주 테이블 하나를
차지했다. 그는 특별히 음식을 가리지 않았다. 이곳
에서는 장르가 전혀 다른 예술인들끼리 인사를 나
누며 금방 친해졌다. 늘 어수선한 열기로 가득찬 심
야식당이었다. 여명이 찾아오면 그들은 외상장부만
을 남겨놓은 채 어디론가로 다 사라졌다.

마광수는 바삭 마른 몸매에 비해 목소리가 크고
기름졌다. 윤시내가 불렀던 '몬테카를로의 추억'은
그의 애창곡이었다. 후렴부 '못 잊을 블루스 봄바
바 봄바'에 오면 웬지 허전하고 슬픈 목소리가 되었
다. 그는 누구나 읽기 쉬운 글을 쓰려고 노력했지만
세상은 그를 불편하고 어렵게 대하였다. 세상은 윤
리라는 이름의 볼 앤 체인을 그의 발목에 묶었다. 스
스로 택한 죽음이 오랫동안 그를 묶었던 볼 앤 체인
을 풀어 주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.

<광주일보와 중앙SUNDAY 제휴 기사입니다>

황인 미술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시기획과
공학과 미술을 융합하는 학제 간 연구를 병행하고
있다. 1980년대 후반 현대화랑에서 일하면서 지금
은 거의 작고한 대표적 화가들을 많이 만났다. 문학
·무용·음악 등 다른 장르의 문화인들과도 교류를 확
장해 나갔다. 골목기행과 흥대 앞 갤러리 문화를 즐
기며 가성비가 높은 중저가 음식을 좋아한다.

작은만큼 큰 기쁨!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개업·성업 안내

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.220-0551

<p>해동공인중개사부동산컨설팅</p> <p>나주시 산포면 468-4(산포면사무소 입구) 토지·임야·주택·아파트·땅 각종부동산 매매 상담</p> <p>☎ 061-337-8244, 010-3626-9040</p>	<p>현대 목공 예 사</p> <p>북구 신안동 239-2 (전대정문사거리) 목공예, 서각현판, 각종 원목침대, 서예부품</p> <p>☎062)523-0408, 010-2631-0408</p>	<p>골프가방수선전문점</p> <p>서구 치평동 세정이울렛점동 동양빌딩앞 명품가방수선, 골프가방수선, 동산화수선 전문점</p> <p>☎ 010-2087-3592</p>	<p>양 지 공 인 중 개 사</p> <p>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, 빌딩, 원룸, 투룸, 상가 임야, 토지 경매·권리분석</p> <p>대표 정민각 ☎ 062)263-2223</p>	<p>기담 철학원</p> <p>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(우산그린공원 옆) 사주(음권·양권) 쉽게 가르쳐드립니다. 개인·단체 환영</p> <p>☎062)432-1324</p>	<p>광주갤러리경매장</p> <p>동구 대인동 동부소방서후문앞 철충은빌 1층 수석, 동양화, 서양화, 민속품 매주 토요일, 일요일 오후2시부터</p> <p>☎ 010-6778-9330</p>
<p>OK 당 구 장</p> <p>동구 대인동 220 대인농협옆 (가오무대 지하) 포켓대 당구대설치, 최신시설완비 냉,난방 완비 친절, 신용 분위</p> <p>☎ 010-8005-0188</p>	<p>완 도 전 북</p> <p>나주시 나주로 131 (나주신협옆) 산지 직송 도·소매 전국택배가능</p> <p>☎010-2831-9257</p>	<p>태극익스프레스</p> <p>동구 계림동 519-36(구.계림시장동) 포장이사, 일반이사, 피아노 인부대기 각종 화물 바구니 무료 친절,신용,분위</p> <p>☎062)222-2424, 011-664-2202</p>	<p>고 전 방</p> <p>동구 궁동 34-4 (중앙초등학교 후문) 도자기, 서양화, 고서화 전문판매점</p> <p>대표 김화중 ☎062)224-4869</p>	<p>청학철학원</p> <p>북구우치로 39-1 (중흥신협옆2층) 작명·사주·운세·궁합·택일 시험·승진·사업·재물·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</p> <p>청학 서광호 ☎010-9866-2332</p>	<p>청강창호</p> <p>북구 청계로 67(용봉동) 현대하이사시 + 피엔에고사시 제작설치전문</p> <p>☎062)528-7711, 010-3612-9794</p>
<p>(주)로만손시계 (주)오리엔트시계</p> <p>동구 호남동 13-3 금, 은, 고급시계 상담대행영!! 광주, 전남 대리점 A/S센터</p> <p>☎062)232-0038, 010-2290-0038</p>	<p>진 주 공 방</p> <p>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족공예 수업 및 주문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</p> <p>☎ 010-3906-1718</p>	<p>으뜸공인중개사</p> <p>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, 빌딩, 원룸, 주택,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</p> <p>☎062)263-5383, 010-6338-5383</p>	<p>신 신 예 술 의 집</p> <p>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</p> <p>대표 서태석 ☎062)222-1936</p>	<p>국수나무용봉점</p> <p>북구 용봉동 109-4번지(국민은행 건물내) 모든 메뉴 포장가능,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</p> <p>☎062)526-5475, 010-8621-5959</p>	<p>클로버부동산</p> <p>북구 필문대로11번길 6 (풍향동) 모든 부동산 사고 팔니다. 임야, 전답, 토지, 상가건물 재건축·재개발 매매·임대</p> <p>☎ 010-5707-6676</p>